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인터뷰- 김동식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톨의 쌀알도 아끼는 어머니같이 예산심의 나설 것’



“누가 봐도 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강북구의 예산을 다룰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식 위원장은 이번 예산에 대한 종합심의를 앞두고 “공공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구 재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이나 지역사업에 대한 반영 노력 등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택과 편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취로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 이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보조금의 경우 열심히 일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목적을 가려 예산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소감을 밝힌다면?

-2013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강북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34

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한 톨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과 같은 심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과감히 삭감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된 강북구의 2013년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2013년도 강북구 예산은 3,296억원으로 올해 예산 2,918억원 보다 378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2억 특별회계가 104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201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가 금년보다 13%정도 늘었지만 영유아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노령연금 등과 같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올해 예

산보다 15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재정여건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2013년도 예산 심사에 나서면서 중점을 둘 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존중하면서도 내년도 가용예산이 15억 정도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상경비 긴급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은 행사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구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장과 각 상임위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강북구민들의 복지와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숙고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포스트 3면

● 인터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배분으로

강북구의회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북구의 내년도 살림살이, 즉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식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소감

2013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강북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 땀방울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톨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 예산을 파악하고 과감히 삭감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북구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강북구 예산은 3,296억원으로 올해 예산 2,918억원 보다 378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2억 특별회계가 104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201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가 금년보다 13%정도 늘었지만 영유아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노령연금 등과 같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15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재정여건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 2013년도 예산 심사 중점사항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시정연설과 재정경제국장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존중하면서도 내년도 가용예산이 15억 정도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상경비 긴급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은 행사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료의원 및 구민에게 한 말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장과 각 상임위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강북구민들의 복지와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숙고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교육과 복지, 서민 안정화에 중점두고 선택과 집중 통해 예산안 심의”

현장중심과 민생정치를 위해 풀뿌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식 예결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 민주통합당 강북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생활정치인으로 지난 11월 시민일보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동식 예결위원장은 먼저 “교육과 복지, 서민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취로사업 분야의 증액과 정산결과 공평성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의 분배, 교육경비 감액과 문화체육 예산의 증액에 따른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다고 밝히며, 지역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예결위원들의 프리미엄 관행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소감은

“2013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강북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깨 무겁지만,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 땀방울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톨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 예산을 파악하고 과감히 삭감하여 강

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 보면 2013년도 강북구 예산은 3,206억 원으로 올해 예산 2,918억 원보다 378억 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2억 특별회계가 104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201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외견상 재정 규모가 금년보다 13%정도 늘었지만 영유아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노령연금 등과 같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15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재정여건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2013년도 예산 심사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시정연설과 재정경제국장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존중하면서도 내년도 가용예산이 15억 정도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상경비 건축 편성 및 행사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복지, 교육, 지역성장 등 서



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은 행사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구민에게 한 말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장과 각 상임위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강북구민들의 복지와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숙고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rmil.net)

시사프리신문 12면(12월 12일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중책 맡아 막중한 책임감 느껴”



강북구의회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식(본 1·2동, 수유2·3동) 의원... 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북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등 현안 해결 소요재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아끼되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필요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강조했다.

김동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강북구에 살림살이다”며 “강북구의회는 많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사회단체 분배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단체는 증액편성할 것이지만, 서류만 한 사업은 삭감 조치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예결위원들과 함께 확인할 것이다”

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과장급 이상 아니면 국장급 이상이라도 자진해서라도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 자체적으로 4급 이상 2.8%정도 급여를 강북구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그 추지로 인해 강북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웃음을 보였다. 특히, “예결위원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아니면 특정 지역에 무엇을 더 해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판단하는 공공에 생각을 대변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인지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식 위원장은 “저도 정당인이지만 여·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무시 하지 말고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반대할 경우는 그만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더 보완해서 하지는 취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과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 강북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어깨 무겁지만, 34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피와 땀방울이 맺혀 있는 예산을 한 톨의 쌀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심정으로 예산을 심사해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 예산을 파악하고 과감히 삭감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북구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우선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강북구 예산은 3,206억 원으로 올해 예산 2,918억 원보다 378억 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2억 특별회계가 104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2013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외견상 재정 규모가 금년보다 13%정도 늘었지만 영유아보육료 및 무상급식 지원, 노령연금 등과 같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15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재정여건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 동료의원 및 강북구민에게 한 말씀 하시다면?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입장과 각 상임위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도 예산이 강북구민들의 복지와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구청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항상 구민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따라서 공정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건속 예산안의 편성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는 구민이 보다 적은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숙고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일 기자